



생애 첫 골든글러브 KIA 안치홍

“SK 정근우 넘어 한국 최고 2루수 되겠다”

“정근우 선배에게 도전장을 내밧니다.”

프로데뷔 3년 만에 골든글러브를 들어올린 KIA 안치홍이 현역 최고의 2루수로 꼽히는 SK 정근우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안치홍은 “골든글러브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확신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라고 수상소감을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첫 수상이라서 떨리기도 했다”며 “정근우 선배가 부상으로 올 시즌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운이 좋았다. 내년에는 도전하는 입장으로 당당히 골든글러브를 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치홍은 2009년 입단과 함께 프로 야구에 굼직굼직한 기록을 남겼다.

데뷔 첫해 최연소 미스터 울스타와 최연소 한국시리즈 홈런의 주인공이 되며 팀의 V10을 이끌었던 안치홍은 지난해 두 번째 도전만에 전기 경기 출전에 성공했다.

올해는 첫 3할 고지에 오르며 골든글러브까지 품에 안았다. 시즌을 돌아봤다.

겉없는 질주를 이어온 안치홍은 내년 시즌 완속미를 더해 ‘넘어갈 산’ 정근우와 진짜 승부를 펼칠 계획이다.

프로 3년차 황금장갑 ‘겉없는 질주’ 타격·수비 보완... 내년엔 진검승부

난 시즌이 끝난 후 어깨 연골 수술을 받으면서 전기출루도 제대로 못했던 만큼 더욱 값진 수상이 됐다.

안치홍은 “올 시즌 몸이 좋지 않아서 한 경기 한 경기 힘들어 하고 그랬는데 성격면이나 자기 싫어하는 승부욕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훈련이 부족했던 만큼 시즌때 많은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수비에서도 나름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안치홍은 “정석인 수비는 아니지만 글러브질이 좋으니까 내가 가진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허리가 아픈 뒤로 수비자세가 무너졌는데 캠프가서 수비도 많이 소화했다. 어찌됐든 부상도 실력이다.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골든글러브 시상대에 다시 서고 싶다는 안치홍은 ‘꼬꼬마 키스톤’의 동반 활약도 그리고 있다.

안치홍은 “(김)선빈이 형과 올 시즌 3할을 같이 하면 좋았을 것이고 골든 글러브도 같이 받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더 잘할 것이다. 나도 열심히 해서 뒤쳐지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안치홍은 “기술적으로 틀을 바꾸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서 스윙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잘 준비되면 장타도 더 나올 것이다”며 “기술적인 것보다는 신체적인 것에 중점을 두어 보완할 예정이다. 허리가 아파서 손발력 떨어지고, 스피드도 발휘 못했는데 당분간 치료도 받고 몸을 잘 만들어서 내년 시즌을 대비하겠다”고 공격력 강화를 예고했다.

안치홍은 “기술적으로 틀을 바꾸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서 스윙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잘 준비되면 장타도 더 나올 것이다”며 “기술적인 것보다는 신체적인 것에 중점을 두어 보완할 예정이다. 허리가 아파서 손발력 떨어지고, 스피드도 발휘 못했는데 당분간 치료도 받고 몸을 잘 만들어서 내년 시즌을 대비하겠다”고 공격력 강화를 예고했다.

안치홍은 “기술적으로 틀을 바꾸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서 스윙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잘 준비되면 장타도 더 나올 것이다”며 “기술적인 것보다는 신체적인 것에 중점을 두어 보완할 예정이다. 허리가 아파서 손발력 떨어지고, 스피드도 발휘 못했는데 당분간 치료도 받고 몸을 잘 만들어서 내년 시즌을 대비하겠다”고 공격력 강화를 예고했다.

안치홍은 “기술적으로 틀을 바꾸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서 스윙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잘 준비되면 장타도 더 나올 것이다”며 “기술적인 것보다는 신체적인 것에 중점을 두어 보완할 예정이다. 허리가 아파서 손발력 떨어지고, 스피드도 발휘 못했는데 당분간 치료도 받고 몸을 잘 만들어서 내년 시즌을 대비하겠다”고 공격력 강화를 예고했다.

김태균 ‘15억 사나이’

한국프로야구 역대 최고 연봉 한화 입단



일본에서 돌아와 한화에 입단하는 김태균이 12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입단 기자회견에서 한대화 감독에게 건네받은 모자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프로스포츠에서 선수 연봉 15억원 시대가 열렸다.

일본프로야구에서 복귀한 김태균이 1년간 한국프로야구 역대 최고 연봉인 15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12일 친정팀 한화 이글스와 입단 계약을 맺었다. 옵션 없이 순수 보정금액이 15억원으로 한국프로야구 역대 최고액이다.

10억원을 넘는 것도 프로야구 출범 30년 만에 처음이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 5일 이승엽이 삼성 라이온즈와 계약한 1년간 8억원(옵션 3억원 포함 총액 11억원)이었다.

애초 한화 구단에서 ‘10억원 + α’의 몸값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과격적인

조건으로 확정됐다.

이승엽은 2004년 말 현대에서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연봉 7억5000만원에 계약한 심정수에 이어 최고 연봉 선수로 이름을 올렸지만 1주일 만에 그 자리를 김태균에게 내줬다.

김태균의 연봉은 야구판은 물론 사실상 국내 프로스포츠에서도 최고액에 해당한다.

프로농구에서는 원주 동부 김주성이 2008년 7억1000만원에 도장 찍은 것이 역대 최고 연봉이다.

김승현(삼성)이 오리온스 구단과 2006년 7억을 얹어 이면계약할 때 보장받은 연봉(10억5000만원)도 김태균이 받게 된 연봉에는 미치지 못한다. 선수 몸값을 공개하지 않는 프

로축구에서는 이동국이 지난해 전북 현대와 2년 계약 연장에 합의하면서 받기로 한 연봉이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국의 연봉은 10억~1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로배구에서는 박철우가 지난해 현대캐피탈을 떠나 삼성화재에 입단하며 받은 3억원이 최고 연봉이다. 구단이 만능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 프로스포츠의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선수의 몸값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김태균의 최고 연봉은 앞으로 프로야구는 물론 다른 종목 스타 선수들의 연봉 수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동국이 지난해 전북 현대와 2년 계약 연장에 합의하면서 받기로 한 연봉이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국의 연봉은 10억~1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민·이동국 동아스포츠 대상

프로야구·프로축구 부문
 프로골프 김경태·김하늘

‘MVP’ 윤석민(KIA)과 이동국(전북 현대)이 2011 동아스포츠 대상을 받았다.

2011시즌 프로야구 MVP 윤석민과 K리그 MVP 이동국이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프로야구 부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윤석민은 20년 만에 투수 4관왕(다승·방어율·탈삼진·승률)을 재현했고, 이동국은 정규리그 득점 2위·도움 1위로 공격포인트 1위를 차지하면서 전복의 K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동아스포츠 대상은 스포츠동아, 동아일보, 채널 A, 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시상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남녀), 프로배구(남녀), 프로골프(남녀) 등 5개 프로종목 선수들이 부문별로 올해의 선수 8명을 직접 뽑았다. 남자 프로농구에선 귀화 현역선수 문태중(전자랜드), 여자 프로농구에 선 정규리그 득점 1위 김정은(신세계)이 대상을 차지했다.



1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 동아 스포츠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별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은(여자프로농구), 김시나(여자프로배구), 문태중(남자프로농구), 김하늘(여자프로골프), 김경태(남자프로골프), 여오현(남자프로배구), 윤석민(프로야구), 이동국(프로축구). /연합뉴스

문태중(전자랜드), 여자 프로농구에 선 정규리그 득점 1위 김정은(신세계)이 대상을 차지했다. 프로배구에선 남자부 삼성화재의 리베로 여오현, 여자부 흥국생명의

세터 김시나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프로골프에선 올 시즌 남녀 상금 랭킹 1위에 오른 김경태(신한금융그룹)와 김하늘(비씨카드)이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연합뉴스

박태환 호주수영 금메달

자유형 400m 3분49초44초 기록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호주에서 열린 호주 수영대회 자유형 400m에서 무난히 금메달을 땀다.

박태환은 12일 호주 브리즈번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1-2012 맥도널드 퀸즐랜드 챔피언십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9초44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레이스를 끝냈다.

지난해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세운 개인 최고기록(3분41초53)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호주의 토마스 프레이저-홀스(3분50초81), 중국의 다이윈(3분52초24) 등을 제치고 우승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대비해 지난

10월20일부터 브리즈번에서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지도로 1차 전지훈련을 해온 박태환은 실전 분위기 적응 훈련의 하나로 이 대회에 참가했다. 수영복도 경기복이 아닌 연습용을 입고 물살을 갈랐다. 박태환은 전날 자유형 200m 예선에서는 1분51초23으로 전체 7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비 퀸즐랜드 주 소속 선수는 3명만 결승에 오를 수 있는 대회 규정 때문에 8명이 겨루는 결승 레이스에 나서지 못했다.

박태환은 13일 자유형 100m·1500m에 출전한다. 이후 오는 20일 귀국했다가 새해 1월4일 호주로 2차 전지훈련을 떠난다. /연합뉴스

“청야년에 맞설 한국 선수 나올 것”

여자골프 ‘선구자’ 박세리

“내년에도 후배들이 지금처럼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선구자’인 박세리(34)가 입이 마르도록 후배들을 칭찬했다.

12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골프 비전’ 선포식에 서다. 이 행사는 미국과 세계연합팀(유럽 제외) 간의 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 2015년 대회의 한국 유치를 기념하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한국인 통산 100승을 돌파한 것을 축하하려고 대한골프협회와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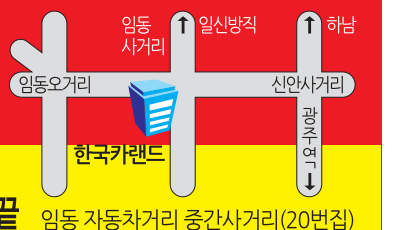
박세리는 올해 골프 여제로 자리매김한 청야년에 맞설 수 있는 한국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연합뉴스

달성은 한 명이 아닌 33명의 선수가 만들어 낸 것이라며 “후배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벨 마이클로 클래식 우승을 포함해 LPGA 투어에서 25승을 거둔 박세리는 우리 선수들이 100승을 쌓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박세리의 성공 이후 한국 여자골프에서는 ‘세리 키즈’로 불리는 최나연, 유소연 등 걸출한 선수들이 배출돼 LPGA 무대를 누렸다. 박세리는 올해 골프 여제로 자리매김한 청야년에 맞설 수 있는 한국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터, 허버언더코팅,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자동차경비일체, 빔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 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임동 자동차터리 중간사거리(20분점)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7만원 ⇒ 12만원
 ▶ 아이나비K100, 3D(8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만도지니 J7,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 모비스폰토스 PU-7, 3D+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모비스폰토스 K-7, 2D+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트립 이동형 장착 모습, 매립장착모델, 전자종기능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사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 본인네비 매립 = 17만원 ⇒ 12만원
 ▶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함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E770B 40만원,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E7 37만원, ▶ E7 17만원, ▶ E2620 10-14만원, ▶ E1 7만원, ▶ EZ5500 25만원